

## 동상이몽(同床異夢)

(혼외정사 1)

보통 신경 정신과에는 골치 아픈 일, 짜증스러운 일들을 가지고 상담하러 오는 일이 많다. 예를 들면 부부 사이의 문제, 고부간의 갈등은 꼭 무어라고 진단을 붙이기 어려운 상태로, 보통 약간의 우울 증상으로 찾아오는 고전적인 단골 메뉴이다.

하지만 잘 못 된 남녀 간의 애정 문제는 기혼자이건 미혼자이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듯 처음부터 후회하고 두려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만은 결코 아니다. 처음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지속 중인 혼외정사가 깨어질 것을 우려하여 어떻게 하면 그런 관계를 '갈등 없이' 계속할 수 있나 그 묘책을 찾아 달라고 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물론 이런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안'이 그들을 몰고 온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지만 사실 그럴 때는 조정자 또는 중재자의 입장에서 서 있는 정신과 의사도 난감할 때가 많다.

그런가 하면 '원조 교제'를 잘 못 했다가 망신살이 뺨쳤는데 재미도 있고 돈도 생기는 일이라는 강한 유혹 때문에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 해서 찾아오는 여학생도 있다. 버젓이 남편이 있고 학교를 다니는 자식들이 있는 가정주부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섹스 아르바이트'를 해 오다가 질 나쁜 상대에게 걸려서 돈도 빼앗기고 계속 협박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 병원을 찾은 그 환자가 원했던 것은 그 자만을 처벌할 수 있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상해 진단'을 받아 내려는 것이었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일이겠지만 정신과 진료실에서는 그러그런 일들이 스스럼없이 의논되어지기도 한다. 각 사람마다 양심의 수준이 다르고 생활의 경험과 철학이 천차만별이라 그 행위에서 느끼는 죄책감도 천양지차(天壤之差)인 것이다.

몇 년 전에 갑작스럽게 병원을 찾은 한 부인은 먼 지방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열심히 다니던 직장에서 포상으로 받은 동남아 여행을 떠났다가 가이드를 하던 청년과 단 하룻밤의 정사를 벌인 후 '양심의 소리'에 죽을 결심을 하게 됐다고 했다. 그녀는 목적지도 정하지 않고 무작정 고속버스를 타고 이곳까지 왔다가 신경 정신과 간판을 보고 '고해 성사'를 하러 왔었다.

만 남자와 정사를 벌이고 싶다는 강한 유혹으로 무척 고심하던 어떤 부인은 신경 정신과에 다니면서 그런 잘못 된 욕망을 상담과 약물로 억제하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언제나 “다음 주에 병원에 안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라는 강한 경고를 주고 있었다. 그러나 일이 그렇게 되려고 그랬는지 속도 모르는 남편이 “재수 없게 정신과를 왜 다니냐?”라며 못 나오게 한 후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 한 육 개월 만에 다시 병원에 온 그녀는 이미 두 사람의 남자와 혼외정사를 갖고 있었으며 그 사실이 남편에게 알려져서 ‘죽을 위기’를 맞고 있었다.

바이런의 서사시에 나오는 돈 주앙(Don Juan)은 16세부터 치정 사건에 연루되기 시작한다. 그는 그리스, 러시아 등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열색 행각에 몰두한다. 그래서 과도한 성적 욕망과 상대를 자주 바꾸어 가며 벌이는 섹스 행각을 오늘날 돈 주아니즘(Don Juanism)이라고도 표현한다.

조디 포스터와 주윤발이 주연한 영화 애나 앤 킹(Anna and King)에서 왕은 수없이 많은 첩을 거느리고 산다. 우리 역사에서도 옛날 임금님들은 수 십 명의 부인을 두었다. 왕권 확장, 세 불림의 미명하에 사실은 누구에게나 잠재하고 있는 동물적이고 성적(性的)인 소유 욕망을 채운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힘’의 논리와 지배자라는 특권이 만들어 준 결과이다.

혼외정사에 빠져 있는 남자들은 “아내가 알지 못 하는 한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고 한다. 혼외정사에 빠져 있는 가정주부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그 남자를 못 만나게 될까 보아 두렵다”라고 한다.

그러나 이들 중 대부분은 치료를 진행하는 동안 차츰 이런 관계에 빠졌다는 사실 자체를 두려워하게 된다. 눈을 감았던 양심이 서서히 눈을 뜨면서 그들은 여러 가지의 내적 사슬에 얽어매어지고 자신을 책망하게 된다. 아마도 그래서 이들에게 정신과 의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